



한해 양육 포기 아동 6천여 명

국내에서 친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아동이 한해 6천여 명에 달하지만 4천여 명만이 새 부모를 찾고 있고 이 가운데 국내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는 천6백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의 날을 만들어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해외 입양이 시작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땅에서 태어났으나 친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우리 아이들이 대략 20여만 명쯤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입양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행사가 펼쳐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가 5월 11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입양부모와 위탁모,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입양의 날 제정을 위한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홀트아동복지회측은 입양의 날을 제정해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국내입양도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입양의 날을 제정하자며 거리에 나와 외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연간 버려지는 아이가 많은데다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이다.

미국 내 입양아 한국 출신이 최다

미국에서 입양되는 아이들의 10% 이상은 해외입양아이며 이 가운데 한국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2000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미국 내에는 160만 명의 입양아가 있는데 그 가운데 13%인 20만 명이 해외에서 입양됐으며 이중 한국출신 입양아는 4만 7천여 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중국이 2만 천여 명, 러시아만 9천여 명, 멕시코 만 8천여 명, 인도가 7천여 명

‘입양의 날’ 제정하자



이광호 KBS 해설위원

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고아 수출국이라 불릴 만큼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킨 것이 한국의 현실이었음을 입증해주는 셈이다.

지난 40여년간 모두 만 5천여 명의 한국 어린이를 미국 가정에 입양시킨 사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1975년부터 미국 미네소타 아동복지회에서 한국 어린이 입양 업무를 맡고 있는 한현숙 해외입양자문관(66)이 그 주인공이다. 한국 입양사의 산증인이기도 한 한현숙 자문관은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금년 어린이날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 자문관은 그 동안 미국인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며 한인 입양아들이 미국인 가정에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한 자문관은 특히 미국에 입양한 한국인으로 골수암을 앓던 성덕 바우만씨가 한국인을 통해 골수를 기증받아 새 삶을 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해외입양아 모국 방문 정부가 나서야

이렇게 많은 해외 입양아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려는 취지로 한국문화 체험행사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진흥문화사측은 5월 11일부터 2주 동안 캐나다 입양아 7명과 그 가족들을 초청해 체험행사를 벌였다. 이들은 고궁

과 민속촌, 청와대, 경주 유적지 등을 방문하고 판소리와 시조창 배우기, 한국식 예절교육 등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행사는 입양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 또는 원망과 두려움들을 언제까지나 개인의 문제로만 묻어둘 수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베풀어진 것이다. 모국방문이나 문화 체험은 개인이나 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해외입양아들에게도 한국 출신임을 느끼게 하고 모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것은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입양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이제는 우리도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입양은 또 하나의 출산이라는 인식에서 입양가정에 유·무급 휴가를 주는 외국처럼 제도적 권장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한가지 반가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개입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양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입양아의 정체성과 장래를 감안할 때 떳떳하게 사실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입양이 일반화된 서구사회에서는 공개입양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혈통주의와 가부장제의 수호장치인 호주제이다. 지난해 찬반 양측이 팽팽히 맞서 열띤 논란을 벌이다가 국회에 상정하지도 못한 채 표류되고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입양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양을 활성화하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입양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국가와 사회전반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Z]